

장성 황룡강 노란꽃장터, 축제기간 6천여만 원 수익 '대박'

16개 업체 참여...농특산물 80여 종 직거래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운영된 '황룡강 노란꽃장터'가 약 6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룡강에서 열린 (洪)길동무 꽃길축제는 30년 전통의 홍길동 축제와 황룡강 봄꽃이 만난 장성 봄 축제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인 지난달 20~29일 개최됐다. 일상 회복에 발맞춘 소규모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로 고른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황룡강 노란꽃장터는 황룡강 생태공원(그린골프장 주차장 주변)에 마련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다. 황룡강 방문이 늘어나는 봄, 가을 무렵에 운영해 관광수요를 농산물 판로와 연결시키고 있다.

지난해 봄 처음 선보였을 당시에는 5주 동안 4천만 원의 수익을 냈

다. 올해는 3년 만에 재개된 축제에 힘입어 임시운영기간 포함 12일 만에 약 6천만 원(5천957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 주목받았다.

올해 노란꽃장터에서는 지역 내 16개 업체가 8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사과, 토마토, 고구마 등 농산물부터 식초, 꿀벌, 장아찌, 발효액 등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준비돼 시선을 끌었다. 축령산 편백나무 제품도 마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장 큰 인기를 얻은 품목은 수국이였다. 군에 따르면, 축제기간 누적 판매금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 장성군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조성한 수국터널 입구에 매대를 꾸려 홍보 효과를 높인 점이 주요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양질의 제품을 중간유통과정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열어 소비자들이 매우 만족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영광 '들숨에 봄꽃내음, 날숨에 여름향기'

백수해안도로·숲쟁이꽃동산·진내근린공원

봄 엔딩과 여름 시작 어디쯤의 계절인 요즘, 영광군 주요 관광지는 꽃들로 온통 화사하다.

향기로운 꽃밭에 묻혀 살랑살랑한 바람을 느끼고 싶다면 영광 여행을 추천한다.

영광 1경인 백수해안도로는 기암괴석과 갯벌, 칠산바다, 노을이 함께 연출하는 풍경이 황홀한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한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인근 꽃동산에는 붉은 양귀비가 매혹적으로 뒤덮여있다.

이곳은 아홉 부인들이 왜란을 피해 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묵방포까지 피신했다가 적선을 만나 굴욕을 당하기보다는 의롭게 죽을 것을 결심하고 그들 모두가 묵방포 앞 칠산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곳이다.

양귀비는 5월 말 피기 시작해 6월에 만개하니 꽃밭을 배경으로 인생

샷을 남기기 바란다.

영광대교를 따라 법성포로 가보자. 숲쟁이꽃동산과 진내근린공원 인근은 금계국으로 황금빛 물결이 일고 있다.

제일 높은 곳에 서서 내려다본 언덕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꽃으로 가득하다. 영광대교와 칠산갯벌, 광활한 평야가 눈앞에 펼쳐지며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금계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동화속에 들어온것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숲쟁이공원도 여름을 맞아 한창 푸르름을 뽐낸다.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 군락지로 '한국의 아름다운 숲'과 '국가명승 제 22호'로 지정된 천년의 숲이다.

군 관계자는 "꽃을 담은 영광군 주요 관광지와 우리 나라 대표 전통 문화 축제인 법성포 단오제에 방문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담양,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현장 기술 지원 나서

담양군이 원예작물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원예작물 바이러스 병은 치료 약제가 개발돼 있지 않아 발병 초기 빠른 진단을 통해 발병주를 제거하거나 매개충을 철저히 방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토마토, 고추 등 가지과 7종, 멜론, 수박 등 박과 4종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10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도입해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바이러스 진단키트 사용법 연수회를 추진했으며, 농업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료를 즉각 진단, 농가 피해 최소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로 진단이 어려운 항목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진단실에서 유전자 증폭 기술(PCR)을 활용해 정밀 분석 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매개충 차단 종합 기술을 투입하는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종연 기자



나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나주 관광의 재미와 흥미를 전하는 관광 퀴즈, SNS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 '설렘의 시작, 나주'를 주제로 한 관광 이벤트는 '관광 퀴즈 풀이'와 '관광지 SNS홍보 게시물 인증'으로 실시되며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나주를 찾는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 제공

'설렘의 시작, 나주' 관광 이벤트 개시

나주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나주 관광의 재미와 흥미를 전하는 관광 퀴즈, SNS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

'설렘의 시작, 나주'를 주제로 한 관광 이벤트는 '관광 퀴즈 풀이'와 '관광지 SNS홍보 게시물 인증'으로 실시되며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나주를 찾는 관광객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시는 매일 1일 이벤트 참여 및 정답자, 게시자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관광 퀴즈 풀이 이벤트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객관식 또는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풀면 된다.

정답자는 추천을 통해 매일 10명씩 선정, 나주시관광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이벤트인 'SNS홍보물 게시 인증'은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관광 명소를 SNS에 사진과 글로 소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모자 중 매일 추천을 통해 5을 선정,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추천 방식 외에도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6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서선택 기자

화순군, 2022년도 스타기업 모집

화순군은 화순군 소재 기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맞춤형 지원을 위해 6월 9일까지 '2022년도 화순군 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2년 5월 23일) 현재 본사나 사업장이 화순군에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돼 있거나 3개월 이내 등록 예정인 기업,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 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유통·숙박·유통 업종, 국제·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한국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 등록 기업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과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지원사업안내(전남통합플랫폼)'를 참고해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플랫폼(data.jntp.or.kr)에서 하면 된다.

군은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현장실사 등 평가를 통해 3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1개 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제품 제작 ▲성능·신제품·신기술·ISO·KS 등 인증지원 ▲특허출원·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지원 ▲디자인, 마케팅 지원 ▲누리집·쇼핑몰 구축 등 정보화 지원까지 최대 2천만 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인 스타기업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천년의빛 영광

'품격' 있는 선물..

영광굴비

영광군 YEONGGWANG-GUN